Ⅶ 맺음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미국의 경제학자 앨런 그리스펀이 한 말이다. 디지털 금융의 시대, 이제 ‘디지털 금융 문맹’이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사용은 디지털 서비스 남용, 사기,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프로파일링 등의 기존에 없던 위험과 금융 소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혁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진정한 금융포용과 금융복지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이며,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증진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은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금융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와 디지털 금융이해력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탐색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보급 현황 및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금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 특히 조기 금융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 과정을 돌아보면 역사, 문화, 과학, 미적분 등 아주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기술인 금융, 돈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일부 이공계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미적분이나 기하학 문제를 푸는 기술보다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며,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예산과 지출관리의 중요성, 대출과 신용의 의미,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과 주식, 보험,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건전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삶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금융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교육은 여전히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초등학생부터 도박중독 문제로 허덕이기 시작한 디지털 금융의 시대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여전히 터부시하며 미루어 놓아도 될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 대면채널이 여전히 굳건한 유일한 금융은 보험이다. 보험의 비대면화도 점진적으로 진행은 되겠으나, 그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완전한 비대면화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느린 비대면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쩌면 이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대면 금융채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넘어선 금융 전문성과 디지털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면채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개인 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제외하면 디지털 이해력의 중요성이 아직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장년층의 디지털 이해력 증진은 다른 보험의 영역에서 비대면 가입이나 옴니채널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디지털 금융은 빠른 결제와 빠른 투자, 쉬운 대출이라는 큰 변화를 가지고 왔으나, 장기적인 재무계획과 금융이해력의 증진에 있어서는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증진함으로써 과소비와 자신의 위험 성향을 넘어서는 도박성 투자에서 벗어나 삶 전반에 걸친 재무관리, 위험관리, 회복 탄력성의 확보를 위한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보험, 연금 등의 금융상품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